



# 총회 AI 대응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 성경적 분별력으로 AI 시대를 이끄는 교회의 길 -

총회정책연구소장 **노재경** 목사

〈발제 요지〉

-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교회 내 유입에 따른 신학적, 목회적 본질의 위기 및 대응 과제 도출
-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지능(영성, 책임, 도덕성)과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연산 및 예측)의 본질적 한계와 구분 명확화
- 인간 주도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핵심 원칙 제시: 인간 주도권, 창의성, 독특성의 회복
- 인간이 ‘프롬프트’로 쉽게 만드는 ‘바이브 코딩’을 통한 창작물을 분별하고, 성경적 가치 기반의 ‘바이블 코딩’을 통한 인류 문명을 만들어가는 근본적 과제 지향
- 목회 행정, 교회교육, 기독교적 상담, 설교 등 교회적 차원의 4개 분야에서 개혁주의 교회가 취할 구체적 대응 방향으로 “개혁주의 기술신학” 정립 작업
- 인간이 성령의 도우심(기도, 말씀, 성령의 인도) 가운데 AI를 바르게 다루는 ‘듀얼 브레인(Dual Brain)’으로서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의 질서 확립
- 디지털 시대 교회가 성경과 기술을 조화롭게 활용하기 위한 총회 차원의 7대 실천 및 정책 과제 제시

## [문제의식] AI 시대, 교회의 본질적 위기와 영적 책무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한 '도구의 발전'을 넘어 인간의 사고방식과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재편하려는 중대한 존재론적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인류 문명 대격변'의 초입으로 설명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때 교회가 기술적 유용성이나 행정적 편의성에만 이끌려 인공지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경우, 강단의 권위 약화, 교회 공동체의 위기 및 비인격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영적 책임의 이완이라는 심대한 신학적, 교회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총회를 비롯한 교회들은 단지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묻는 차원을 넘어, "일반 은총 차원에서 성경적 진리와 개혁주의 신앙의 토대 위에서 어떻게 이 거대한 기술 문명을 분별하고 다스릴 것인가"라는 '문화명령'(Cultural Mandate, 창 1:28)을 더욱 신중하게 성찰해야 할 때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총회는 보다 체계적이고, 체제적으로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I. 서론: AI 시대 교회의 도전과 기회, 그리고 신학적 긴장

역사적으로 새로운 매체와 기술의 등장은 교회의 사역과 복음 전파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구텐베르크의 활자 인쇄술이라는 기술적 토대 위에서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진리를 전 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었듯이, 기술은 본래 하나님의 일반은총 아래 허락된 문화적 산물이자 도구입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어 우리가 직면한 인공지능(AI) 물결은 과거의 도구적 발전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물리적 노동의 대체를 넘어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인지적 판단, 언어의 생성, 논리적 추론, 심지어 예술적 창작과 정서적 공감의 영역까지 포괄하며 현대 사회의 구조와 의사소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기술적 파도는 이미 교회의 목회 현장 깊숙이 밀려들어 왔습니다. 설교 본문의 배경을 분석하고 예화를 수집하는 일, 방대한 회의 결의안이나 신학 서적을 요약하는 일, 주일학교 공과 콘텐츠와 이미지를 제작하는 일, 심지어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바탕으로 기도문을 초안하거나 행정 공문을 작성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AI는 암암리에 활발히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재정적 한계를 겪는 다수의 미자립 교회와 개혁 교회에 사역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 사역자가 본질적인 영혼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물리적 시간을 확보해 준다는 긍정적 측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기술 역시 창조 세계의 숨겨진 원리를 발견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적절히 선용될 경우 교회의 질서와 봉사를 보조하는 유익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의 유입은 동시에 심대한 신학적·목회적 도전을 수반하며 교회 앞에 무거운 긴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첫째, 진실과 허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Hallucination, 환각)은 절대적 진리를 수호하고 선포해야 할 교회의 본질을 근본에서부터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조합된 오류와 허위가 강단과 교육 현장에 스며들 경우, 교회의 신뢰는 중대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둘째, 의사결정과 판단의 근거를 기술의 알고리즘에 과도하게 의존할 때 인간의 도덕적·영적 책임성은 점차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인격적 상호작용과 성도의 교제(Communio Sanctorum)가 본질인 신앙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비인격화와 자동화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목회적 위로와 돌봄은 단순한 문장 생성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성도의 영혼을 향한 동행과 기도는 기계적 응답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총회와 한국 교회의 과제는 단순히 AI의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수준의 협소한 실용주의를 넘어서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가치와 주도권을 가지고, 어떠한 신학적 인간론의 토대 위에서 이 기술을 다스리고 운용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정립해야 합니다.** 세속 문화가 기술의 무한한 확장과 편의성에 열광할 때, 교회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고백하는 개혁주의 신앙의 관점으로 이 기술 문명을 깊이 성찰하고 엄정하게 분별하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 II. 본론

### 1. 인간지능과 인공지능: 본질적 차이 및 개혁주의 인간론

인공지능 기술을 올바르게 평가하고 활용하기 위한 첫걸음은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의 본질적 한계와 존재론적 구분을 명확히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언어를 이해하고 지식을 산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적 확률에 따라 다음에 올 가장 적합한 단어와 패턴을 조합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고도화된 연산 기계’일 뿐입니다. 인공지능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Cognitio Dei)도,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Cognitio Hominis)도 없습니다.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신학적으로 정교한 문장을 생성해 낼지라도,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을 향한 갈망도, 죄에 대한 애통함도, 도덕적 책임을 감당하는 인격적 주체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인간지능은 성경이 선언하듯(창 1:27)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된 존재의 심오한 특성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성, 지성, 감정, 의지를 포함한 전 존재가 총체적으로 부패한 상태(Total Depravity)에 놓여 있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능조차도 죄의 오염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완벽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오류를 범합니다. 인공지능에 내재된 편향성과 오류 역시 결국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데이터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죄성을 거울처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언약적 존재이자 책임적 주체입니다. 인간의

지성은 단순한 정보 처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악을 분별하고, 구속의 은혜를 깨달으며, 회개와 순종으로 응답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지능은 삶의 궁극적 의미를 묻고, 타자의 고통에 눈물로 공감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인간은 역사적 실패의 기억 속에서 고뇌하고, 성령의 탄식하심에 동참하며, 자기 부인이라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매끄러운 설교문 초안을 작성하거나 정제된 위로의 문장을 생성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의 치열한 영적 씨름, 양 떼를 향한 목자의 거룩한 애통, 죄를 끊어내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결연한 의지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존재론적 차이를 망각한 채 인공지능을 인간과 동등한 지적 주체로 격상시키거나, 더 나아가 목회적·신학적 권위까지 부여하려는 시도는 현대적 이상화의 위험을 배태합니다.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타락한 세상 속에서 신중하고 지혜롭게 다루어야 할 도구적 수단에 불과하며, 신앙의 인격적·성례적·공동체적 사역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고 '성령님'의 인도 아래 선 사람을 통하여서만 온전히 수행될 수 있음을 분명히 천명해야 합니다.

## 2. 인간 주도의 AI 활용 원칙 — 인간 주도성, 창의성, 독특성

인공지능의 도구적 한계와 인간의 영적 고유성을 명확히 인식한다면, 교회는 인공지능에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지성을 발휘하여 기술을 주도적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 인간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청지기(Stewardship)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창 1:28). 따라서 기술은 인간을 지배하거나 신앙을 결정짓는 주권적 실체가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거룩한 치리 아래에서 통제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 현장에서는 반드시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원칙이 철저히 담보되어야 합니다.

### 1) 인간의 주도성(Subjectivity) 확립: 분별과 책임의 최종 책임은 '자기'이다

AI가 생성하여 제공하는 정보와 결과물은 결단코 최종적인 정답이 될 수 없으며, 단지 검토를 요하는 거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교회 내에서 생산되는 문안이나, 공적 기도문, 총회, 노회, 교회의 공문서, 주일학교 교재, 목회 상담 지침 등 모든 공식적 산물은 반드시 목회자와 훈련된 사역자의 엄밀한 신학적 검토와 목회적 분별을 거쳐야 합니다. 기술의 편의성에 기대어 의사결정을 알고리즘의 도출 결과에 무책임하게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AI의 오류로 인해 교리적 이단성이나 목회적 상처가 발생한다면, 그 윤리적, 영적 책임은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차용한 '인간 사역자'가 전적으로 진다는 '인간주권성의 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2) 창의성(Creativity)의 발현: 기계적 모방을 넘어선 성령의 영감과 해석

인공지능은 과거에 축적된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통계학적으로 조합하여, 가장 평균적이고 보편적이며 그럴듯한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가 추구하는 신앙적

창의성은 과거 데이터의 기계적인 재생산이나 세상의 평균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에게 부여된 진정한 목회적, 신학적 창의성은 시대를 향한 예언자적 통찰이자,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의 살아있는 현실 속에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성령의 조명(Illuminatio) 아래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교회는 AI를 단순히 콘텐츠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공장식 기계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직된 사유 체계를 환기시키고 자료 수집의 폭을 넓혀주어 목회자의 깊은 영적 상상력과 목상을 자극하는 '보조적 촉매제'로만 지혜롭게 활용해야 합니다.

### 3) 인간독특성(Uniqueness)의 보존: 개교회와 교회 공동체의 고유한 부르심 보호

AI가 생성한 획일화되고 규격화된 목회 자료를 교회가 무비판적으로 복사하여 수용할 경우, 각 지역 교회가 오랜 세월 눈물로 쌓아온 고유한 역사, 지역적 문화, 그리고 성도들의 특별한 아픔과 특성이 산술적으로 계량화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프랜차이즈 기업의 매장이 아닙니다. 각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그 지역과 시대 속에 심으신 고유한 부르심(Calling)과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리더십은 범용적인 인공지능의 산출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단일함을 탈피하고, 그것을 각 공동체의 특수한 목회적 상황, 개혁주의 신학적 전통, 성도들의 영적 수준에 맞게 치열하게 재해석하고 생산해냄으로써, 우리 교회만의 언어와 신앙적 독특성을 철저히 보존해야 합니다.

"기술의 처리 속도는 인간을 앞설 수 있으나,  
교회의 참된 분별은 언제나 살아있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 아래 있어야 합니다."

## 3. 두 가지 디지털 세계관 — 바이브 코딩 vs 바이블 코딩

디지털 문화가 가속화되고 숏폼(Short-form) 콘텐츠가 범람하면서, 현대 사회 전반의 기술 활용 방식은 진리의 깊이보다는 순간의 속도와 찰나의 감각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습니다. 본 발제는 오늘날 기술 문명 앞에서 교회가 마주한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선명하게 대비하기 위해, '바이브 코딩(Vibe Coding)'과 '바이블 코딩(Bible Coding)'이라는 개념적 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코딩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세계관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영적 전쟁의 문제입니다.

'바이브 코딩'은 세상의 흐름, 곧 시대의 감각적 유행(Vibe)과 트렌드, 즉각적 반응과 가시적 성과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전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짤 때 'C언어'나 '자바 TOOL' 최근에는 '파이썬'이라는 기계언어를 사용하여 코딩을 많이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멀티 모달 기능을 생산해 내는 AI 에이전트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AI 툴'의 흐름이 검색 기능, 챗봇 기능, 거대 언어 모델(LLM) 활용기능을 거쳐, 2026년도부터는 'AI 에이전트'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코딩을 프롬프트를 통해 쉽게 처리함으로 모든 창작물을 생산하는

일에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기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옛날 비트 컴퓨터 시절 ‘DOS’를 외우는 때에서 ‘윈도우’체제로 바뀌는 것과 같은 변화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패러다임 안에서는 말씀의 진정성이나 교리적 깊이보다 “얼마나 신속하게 대중의 시선을 끌어들이는가”, “얼마나 자극적으로 반응을 증폭시키는가”, “어떻게 해야 추천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는가”가 사역의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지칭 변질되기 쉽습니다. 만일 교회가 시대에 뒤쳐지지 않겠다는 조급함 속에서 개혁주의 신학적 점점 없이 ‘바이브 코딩’의 논리에 동화된다면, 거룩한 목회 사역은 선정성과 마케팅 효율성 중심으로 변질될 우려가 큼니다. 이는 결국 복음의 좁은 길을 넓고 편한 기술 자본주의의 논리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을 우려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 범용 인공지능(AGI) 시대와 슈퍼 인공지능(ASI) 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더욱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반면 ‘바이블 코딩’은 흔들리지 않는 성경적 가치와 신학적 원칙(Bible)에 견고히 뿌리를 내리고, 기술의 선한 목적과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는 신앙적 패러다임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는 철저히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원리 아래에서만 기술의 효용성을 해석하고 사용하며, 기술을 통한 모든 디지털 실천의 궁극적 목적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을 돌리는 방향으로 재배열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따라서 바이블 코딩은 기술 앞에서 멈추어 서서 끊임없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AI 기술의 도입이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향한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는 데 기여하는가?”, “이 편리한 사용 방식이 오히려 기도하는 무릎을 약하게 만들고 인간의 전적 타락성과 죄성을 망각하게 하지는 않는가?” 바이블 코딩은 기술의 도입이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소외된 약자를 배려하며, 언약 공동체의 연대와 거룩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통제합니다. 혼돈의 디지털 시대 속에서 교회는 세속적 감각을 좇는 ‘바이브 코딩’의 유혹을 보다 거룩함으로 가는 ‘바이블 코딩’으로 가는 길로 활용함으로, 든직한 성경적 세계관으로 기술의 실타래를 직조해 내는 ‘바이블 코딩’의 순례길을 의연히 걸어가야 합니다.

#### 4. 교회적 차원의 4개 분야 대응: 개혁주의 교회의 실천 방향

총회 차원의 거시적인 정책 수립과 더불어, 개별 교회 현장에서는 신학적 원리를 구체적 사역에 적용하는 명확한 실천 지침이 요청됩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오직 성경의 절대적 권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간의 전적 부패와 하나님의 은혜, 장로교회 정치 원리에 따른 언약 공동체의 질서, 그리고 ‘말씀과 성례’라는 은혜의 방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을 다스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기술은 교회의 형태를 제멋대로 규정하거나 변경하는 원리가 될 수 없으며, 오직 성경과 교리 안에서 확립된 교회의 본질을 충성스럽게 보조하는 종(Servant)이어야 합니다. 특히 다음의 네 가지 핵심 목회 영역은 인공지능 활용이 이미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분야이므로, 개혁주의 원리에 기초한 단호하고도 지혜로운 대응 원칙이 세워져야 합니다.

### 1) 목회 행정: 행정 효율은 보조하되, 교회의 치리와 책임적 판단은 사람에게

목회 행정 영역에서 생성형 AI는 주보 문안의 초안 작성, 복잡한 당회 회의록이나 공동의회 회의록의 요약 및 정리, 절기 행사 일정의 기획 및 성도 심방 문자 작성, 각종 공문서의 형식적 틀(Template) 제공 등 교회 내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 상당한 유익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역자들이 서류 작업에 매몰되지 않고 기도와 말씀 연구에 전념하도록 돕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교회는 행정을 세속 기업의 단순한 사무 기술이나 효율성 게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교회 행정은 말씀과 질서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는 영적 치리(Governance)의 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부서 사역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전략 수립은 결코 AI의 알고리즘 계산에 위임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권징과 치리, 헌금의 사용을 결정하는 재정적 판단, 그리고 직분자를 세우는 인사 관련 분별은 AI의 통계적 예측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금식하고 엎드리는 책임 있는 당회원(목사와 장로)들의 숙고와 결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AI는 문서를 예쁘게 다듬어 주는 정리의 도구일 수는 있으나,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행사하는 통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 2) 교회교육: 정보의 전달은 도울 수 있으나, 언약 자녀의 신앙 형성은 교회 공동체에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 교육 영역에서 AI는 놀라운 속도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성경공부 교안의 초안을 작성하고, 연령별 및 인지 수준별 맞춤형 학습 자료를 순식간에 정리해 내며, 아이들의 흥미를 끄는 퀴즈나 화려한 시청각 콘텐츠(이미지, 영상)를 생성하는 데 있어 AI는 주일학교 사역자들에게 매력적인 도우미입니다.

하지만 개혁주의 언약 신학의 전통은 교회교육을 단지 성경 지식을 주입하는 정보 전달의 과정으로 격하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부모와 교사의 삶을 통해 신앙이 인격적으로 전수되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형성(Formation)되어 가는 '거룩한 생명'의 그리스도의 몸인 유기적 교회로의 형성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교사가 자신이 가르칠 말씀을 묵상하는 수고 없이 AI가 1분 만에 만들어준 요약 자료를 그대로 들고 학생들 앞에 서는 것은 영적 직무 유기일 것입니다. AI가 생성한 자료는 반드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 등 교단의 정통 교리에 비추어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시각적 자극에 익숙해진 다음 세대에게 AI가 주는 편리하고 얇은 요약본을 먹일 것이 아니라, 다소 느리더라도 텍스트로서의 성경 본문 그 자체를 깊이 읽고, 교사와 눈을 맞추며 토론하고, 교리를 암송하여 삶의 뼈대로 삼도록 돕는 인내의 훈련이 절실합니다. 교육의 가시적 속도보다 언약 백성으로 빚어지는 영적 깊이를 중시해야 합니다.

### 3) 기독교적 상담: 공감의 문장은 흉내내도, 영혼의 짐을 함께 지는 돌봄은 대체할 수 없음

목회 및 기독교적 상담 영역에서 AI 챗봇 기술은 심리적 위로를 주는 문장을 생성하거나, 성경 구절을 상황에 맞게 추천해주고, 자살 예방 센터와 같은 위기 대응 기관의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는

등의 기초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서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교회는 성경적 상담을 단순한 세속적 감정 관리 기술이나 심리학적 문제 해결로 보지 않습니다. 기독교 상담은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아래서 인간 존재의 근원적 이상숭배와 죄의 문제를 다루며, 십자가의 은혜로 상처를 싸매고 영혼을 목양하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장입니다. 내담자의 깊은 수치심, 죄악의 고백, 처절한 회개와 용서, 파괴된 관계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회의의 깊은 밤과 같은 문제들은 결코 차가운 알고리즘의 통계적 응답이나 기계적 조언으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롬 12:15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명령은 오직 피와 눈물을 가진 인간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교인들의 치명적인 아픔과 개인정보, 민감 정보는 외부 거대 기술 기업의 AI 시스템에 무분별하게 입력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AI는 지식 탐색의 보조 역할에 엄격히 머물러야 하며, 실제적인 경청과 고통의 연대, 함께 무릎 꿇는 기도와 권면은 반드시 목회자와 성령 충만한 신앙 공동체가 친히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4) 설교 도우미: 방대한 자료 수집은 위임할 수 있으나, 강단의 권위와 말씀 해석의 책임은 설교자에게 가장 예민한 강단 사역에 있어 AI는 설교자들에게 강력한 유혹이자 도우미입니다. 본문과 관련된 역사적·문화적 배경 지식을 순식간에 정리해주고,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의 뜻을 분석하며, 다양한 주석가들의 견해를 요약하고, 현대적 예화를 주제별로 범주화하여 심지어 설교의 뼈대까지 작성해주는 생산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교회는 설교를 종교적 연설이나 도덕적 강연, 단순한 정보 전달의 자리로 보지 않습니다. 스위스 종교개혁자 하인리히 불링거가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에서 “하나님 말씀의 선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Praedicatio verbi Dei est verbum Dei)”라고 고백했듯이, 설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의 방편입니다. 따라서 참된 설교는 설교자가 본문을 붙들고 밤새워 씨름하는 경건한 연구, 자신의 뼈를 깎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회개, 눈물어린 주해, 성도들의 고단한 삶의 자리에 대한 깊은 목회적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강단에 임하시는 성령의 불같은 기름 부으심(Uncion) 속에서만 잉태됩니다.

AI가 확률적으로 조합하여 작성한 문장들을 설교자가 자신의 묵상인 양 강단에서 그대로 전하는 행위는, 설교자의 부르심을 스스로 훼손하고 강단의 영적 권위를 약화시키는 중대한 왜곡입니다. AI는 목양실과 서재에서 백과사전이나 검색 도구를 보완하는 자료 수집 보조자의 자리에 엄격히 제한되어야 합니다. 강단에 서서 떨림과 경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설교자의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책임은 그 어떠한 기계에게도 이전될 수 없습니다.

## 5. 듀얼 브레인(Dual Brain):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AI를 바르게 다스리는 질서

결론에 앞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반드시 정립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신앙적, 인지적

구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지성과 인공지능이 어떠한 관계적 위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듀얼 브레인(Dual Brain)’의 질서입니다.

세상의 기술 환원주의자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를 온전히 대체할 것이라고 예언하거나, 인간의 생물학적 뇌와 기계의 뇌가 융합되는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내지 피지컬AI(Physical AI)의 미래를 너무나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의 ‘듀얼 브레인’은 인간이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거나 AI를 우리의 생각하는 대체물로 수용하는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인간의 영적·도덕적·신학적 판단 능력(제1의 뇌,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주권적 지성)과 인공지능의 신속한 정보 처리 및 데이터 연산 능력(제2의 뇌, 보조적 도구)을 철저히 구분하되, 창조 질서에 입각한 올바른 위계 아래 활용하는 접근 방식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의미를 해석하고, 목적을 설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악을 분별하는 ‘다스리고 지배하는 제1의 주도자’로 우뚝 서야 하며, AI는 자료를 탐색하고 정리하여 인간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섬기는 제2의 수단’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이 질서가 무너져 AI가 제1의 주도자가 될 때, 인간의 이성은 게을러지고 신앙은 생명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로 타락하고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이 거대하고 압도적인 기술(제2의 뇌)을 지배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부여받은 제1의 뇌의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 자신의 의지나 철학적 각성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만 인간이 제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AI라는 거대한 정보의 바다를 노련하게 항해하기 위해,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듀얼 브레인의 참된 완성은 기술적 숙련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세 가지 영적 태도를 견지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 1) 기도하는 지성: 하나님께 전적인 의존 속에서 지혜를 구함

기술은 우리에게 무한한 정보(Information)를 약속하지만,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목양하는 데 필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Wisdom)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5)” 성경은 명확히 지혜의 출처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가르칩니다. 인간이 AI를 바르게 다루기 위한 첫 번째 질서는 바로 ‘기도하는 지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에 질문(Prompt)을 입력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하는 목회자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는 명령은 정보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더 절박합니다. 기도는 내가 피조물이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가장 강력한 신앙 행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서는 기술이 주는 편리함 속에 감추어진 교만과 위험을 조명해 주십니다. 인공지능은 1초 만에 논리적인 답변을 쏟아내지만, 기도는 응답을 기다리는 침묵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 거룩한 기다림과 간구의 시간이 전제될 때, 우리는 기술에 매몰되지 않고 기술을 다스리는 주체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 2) 말씀에 깨어 있는 지성: 진리의 척도를 통한 분별

인공지능은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진리를 상대화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성향을 기술적으로 가속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인간의 지성은 흔들리지 않는 절대 진리의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곧 ‘말씀에 깨어 있는 지성’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시 119:105).” AI가 쏟아내는 수많은 사상과 신학적 견해들, 그리고 세속의 윤리 기준들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척도(Canon)는 오직 성경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 3:16)”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골 3:16), 우리는 분별력을 잃지 않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AI가 추천하는 달콤한 예하나 인본주의적 상담 지침을 마주했을 때, 성경에 깊이 뿌리내린 지성은 즉각적으로 영적 오류를 걸러내야 합니다. 따라서 AI 시대의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은 새로운 IT 교육에 앞서, 오히려 성도들에게 성경을 부지런히 읽히고 암송하게 하며 교리를 철저히 가르쳐 영적 분별력의 해상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 3)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한 지성: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룩한 걸음

마지막으로, 듀얼 브레인의 질서를 통제하는 결정적 동력은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한 지성’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 16:13).” AI는 알고리즘에 갇혀 예측 가능한 기계적 인과율만을 제시하지만, 성령님께서서는 바람이 임의로 불 듯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안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바울의 권면처럼, 기술 문명이 몰고 가는 편의주의적 세대를 본받지 않고 거슬러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갈 5:16-25)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엡 5:15-17)”는 말씀은 시대의 표적을 읽는 성령의 지혜를 촉구합니다. 목회와 사역의 갈림길에서 인공지능이 ‘가장 효율적인 다수의 길’을 추천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고난받는 소수의 좁은 길’로 이끄실 때 기꺼이 그 인도를 따르는 민감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AI는 성령님을 모실 수 없기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우리 자신이 늘 깨어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비로소 기술을 영혼 구원의 도구로 바르게 다룰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의 ‘듀얼 브레인’은 인간의 뛰어난 지능과 최신 기술의 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하고, 말씀에 깨어 있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공지능이라는 거친 도구를 지혜롭고 거룩하게 다스리는 영적 질서’를 의미합니다. 이 질서가 교회 안에 견고히 세워질 때, 우리는 기술의 종이 되지 않고 도리어 기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참된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혁주의 기술신학’의 정립이 긴급하게 요구되어 집니다.

### Ⅲ. 결론: 한국 교회와 총회를 향한 시대적 부름

인공지능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목양실과 예배당, 그리고 성도들의 일상 깊숙이 스며든 중대한 목회적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기술에 대한 맹목적 두려움으로 물러서거나, 반대로 협소한 실용주의에 이끌려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두 극단을 모두 경계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성경적 세계관과 개혁주의 신학의 견고한 토대 위에서 이 기술 문명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이를 복음 전파와 성도의 교제를 위한 질서 있는 도구로 선용하는 데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지능의 고유한 주체성과 영성, 성경적 독특성을 교회가 먼저 확고히 확립해야 합니다. 진리와 사랑이라는 변함없는 복음의 기준을 차가운 디지털 공간 속에서도 생생하게 구현해 내야 합니다. 우리가 다루는 모든 기술 활용의 궁극적 방향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로 질서 있게 배치할 때, 교회는 가짜 뉴스와 비인격적 소외로 신음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인류에게 올바른 윤리적 나침반을 제공하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AI를 능숙하게 다루는 기능적 역량만이 아니라, 동시에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깨어 있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룩한 사역자의 품성과 영성의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교한 기계보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의 중심을 귀히 보시며,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제 이러한 거대한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총회는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여 분명한 기준을 수립하고, 신학교는 바른 개혁신학으로 사역자들을 견고히 세우며, 노회와 개교회는 상호 관계 속에서 이를 지혜롭게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책과 공유적 자원의 마련이 시급히 요청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7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 총회 AI 대응을 위한 7대 정책 제언

1

총회본부내 <AI 팀(국)>을 설치 운용하여 <총회 차원의 AI 컨트롤 타워>를 실무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 총회내 전국 교회의 AI 활용 실태를 파악하여 지속적인 대처 및 대안 제시
- 총회 차원에서 안전한 AI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2

총회 산하 『AI 윤리 및 목회 활용 가이드라인』 전면 제정 및 배포: 개혁주의 신학에 기초하여 AI 활용의 신학적 근거, 윤리적 기준, 그리고 금지 및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총회 차원의 공식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합니다.

- 설교 및 강단 사역에서의 AI 사용 지침(대체 불가, 보조 도구 명시) 제시 및 교육
- 교인 개인정보, 상담 내용, 헌금 기록 등 민감 정보의 AI 입력 및 유출 금지 조항 마련 및 교육
- 저작권, 표절, 딥페이크(Deepfake) 기술 악용 방지를 위한 교회 미디어 윤리 기준 확립 및 교육
- 총회 소속 교회들이 공통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매뉴얼 책자 및 PDF 배포

3

목회자 및 교회 지도자를 위한 『AI 리터러시 및 분별 교육』 실시: 신학교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총회, 노회 산하 목회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한 기기 사용법을 넘어선 체계적이고 신학적인 미디어·AI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신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시대의 목회 윤리와 미디어 사역’ 교육
- 장로, 권사, 교사 등 제직 훈련 과정에 AI 기술의 한계와 위험성을 인지시키는

분별 교육 포함

- 개혁주의 인간론, 성경관, 교회론에 기초하여 기술 우상주의를 경계하는 영성 훈련 병행

## 4

**본질적 영적 사역에 대한 『인간 책임(Human Accountability) 원칙』 결의 : 본질적인 영적 사역에 있어서는 어떠한 첨단 인공지능 기술도 성령님의 인도 아래 선 ‘인간 사역자’를 결코 대체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총회 차원에서 선언하고 규범화 해야 합니다.**

- 강단에서의 말씀 선포, 목회적 돌봄과 상담, 성례(세례와 성찬) 집례, 치리와 권면의 주체성 명시 필요
- 기계적 생성물을 최종 결과물로 여과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목회적 기만으로 규정 필요
- 기술 사용 시 최종적 판단과 법적, 영적 책임은 해당 사역자 및 당회에 있음을 천명 필요

## 5

**소형 및 미자립 교회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총회형 AI 목회 지원 플랫폼』 구축: 대형 교회와 소형 교회 간의 AI 기술 격차가 심각한 목회적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총회가 공공재 성격의 목회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안전성과 개혁주의 신학적 건전성이 전문가들에 의해 철저히 검증된 총회 전용 AI 보조 도구(프롬프트 템플릿 등) 개발 및 지속적 보급
- 주일학교 공과, 행정 양식, 절기 자료 등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자료실 운영 필요
- IT 및 AI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총회 AI 사역 지원단’을 조직하여 농어촌 및 개척 교회 기술 자문 지원 필요

## 6

**다음 세대와 전 성도를 위한 『디지털 영성과 분별력(Digital Discernment)』 교육 강화: 성도들의 일상생활과 직업 현장에 깊이 침투한 AI 환경 속에서, 성도들이 세상의 ‘바이브 코딩’에**

휩쓸리지 않고 '바이블 코딩' 되어 복음적 가치관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돕는 선도적이며 실천적 교육이 시급합니다.

- 주일학교 및 청년부 커리큘럼에 '개혁주의 기술신학'에 입각한 '기독교 세계관과 인공지능' 주제를 배정 교육 필요
- 정보의 과잉 속에서 영혼을 지키기 위한 <예> 플러그 인 주일 등<디지털 절제(금식)> 캠페인 전개 필요
- 온라인 공간에서의 혐오 표현 방지 및 기독교적 언어 윤리 회복 운동 전개 필요
- 부모들이 자녀의 스마트기기 및 AI 사용을 성경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학부모 가이드' 제공 필요

## 7

### 총회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총회신학의 정체성 견지

- 총회 하드웨어 구축을 통한 데이터 관리